

[蒙古文法書資料] No. 2.

## 「金鑑」이라고 題한 蒙古文法書에 對해서

崔 鶴 根\*

### 一. 序 言

여기에 紹介하려고 하는 「蒙古文法書資料 第二」는 (第一은 「言語의  
修飾이라고 題한 蒙古文法書에 對해서」——국어국문학, 第74號, 1977.  
4. pp. 37~58 參照) 그 原名이 「蒙古文法을 明瞭하게 說明한 『金鑑』이  
라고 하는 (內容)이 여기 들어 있다.」(mongγol üsüg-ün yoson-i to-  
dorqayilan γarγaysan altan toli kemekü orosiba)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長文의 題目은 蒙古書冊 題目的慣例的인 것이고, 單只「金鑑」이라  
고만 稱해도 無關하다.

「金鑑」은 “altan toli”的 翻譯인데, 蒙古人들이 重要하다고 믿어지는  
것에는 「金」(altan)을 冠한다. 假令, “altan tobči”는 「黃金史要網」 또는  
「黃金史綱」이라고 翻譯되고 있는데, (實은 金史要網으로 해도 무방하  
나, 이는 金國의 金史와 混同되기 때문이다.) 이는 「蒙古史要綱」(實은  
“Činggis qaγan” 「成吉思汗」의 一代記)이며, 「大端히 貴重하고 高貴한  
歷史」라는 뜻으로 使用한 듯하다. 또 “toli”는 「거울, 鑑」을 意味하는데,  
滿洲語나 蒙古語에서는 主로 辭典을 題할 때 使用된다. 가령 “manchu  
mongγol toli”는 「滿洲·蒙古語辭典」(科學아카데미出版所刊行, ulaan-  
baatar, 1968)이다.

따라서 「말」(言語)에 關한 書冊이나, 辭典에는 “toli”가 붙는 모양으  
로, 이 “altan toli”(金鑑)도 著者의 意向으로는 「貴重하고 高貴한 蒙古  
語의 文法을 記錄한 書籍」이라는 뜻으로 「金鑑」「altan toli」と 題한

\* 人文大 教授 (國語學專攻)

것 같다.

本文의 緒頭에 나, 末尾에 本文法書는 光緒二十九年, 癸卯年 正月吉日에 製版 刊行한 것으로 되어 있고(1903年 清朝, 德宗代), 蒙古文字가 最初로 制定된 以來 660년이 經過한 것으로 記錄하고 있는데, 「言語의 修飾」이 道光 8年, 戊子年(1828)에 刊行되었고, 그 最初에 蒙古文字가 制定된 癸卯年以來 585년이 經過했다고 하니 兩者的 年數記錄이 一致하고, 이 「金鑑」은 「言語의 修飾」보다는 75년後에 刊行한 것이 된다. 또한 「言語의 修飾」과 同樣으로 그 著者와 書寫者(또는 刊行者)가 다른 模樣인데, 이 「金鑑」의 著者は sili-yin γool盟, abay-a右翼 札薩克旗의 都統官인 Jangki l̥hmusurung(sili-yin γool-un čiγolayan-u abay-a yin barayun edegeed jasay-un qosiyun-u qosiyu-gi Jakiroγči Jangki l̥hmuṣurung)이 著作하고, 光緒二十九年, 癸卯年 正月吉日에 製版 刊行했는데, 다시 이것을 蒙古共和國의 第三年 夏六月初一日에 京都大館地區에 있는 「新金鑑」의 出版所에서 많은 蒙古書籍과 함께 學生諸位에게 有益한 良書를 刊行 販賣하고 있다고 記錄하고 (mongyol ulus-un olan-a ergügtegsen-ü γurbatuyar on Jun-u segül sarayin sineyin nigen-ü edür-e neslegsen yeke kūriyen-ü γajar-a büküi sin-e toli yin qoriyan ača olan mongyol bičig Suryud tan-a tusalaqui yin sayin sanay-a bar toromal toroju tarqayan neytelbei) 그 다음에 그 刊行人이라고 밀어지는 「 Menggelem」(Menggelem)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記錄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筆者가 紹介하려고 하고 있는 「金鑑」은 光緒二十九年(1903)에 刊行된 初刊本은 勿論 아니고, 그 複刊本으로서 「Menggelem」의 「蒙古書籍出版社」에서 刊行된 것으로 밀어지는데, 書籍 自體가 從來의 蒙古書籍과는 달리 新式으로 (15cm×21cm) 1頁에 13行, 全 27頁, 表紙裏面에 「價三十銀」(ün-e γučin münggün)의 記錄이 있다(相當한 高價로 되어 있다).

그런데, 筆者가 이 책을 求得 複寫한 것은 日本國 東洋文庫에서 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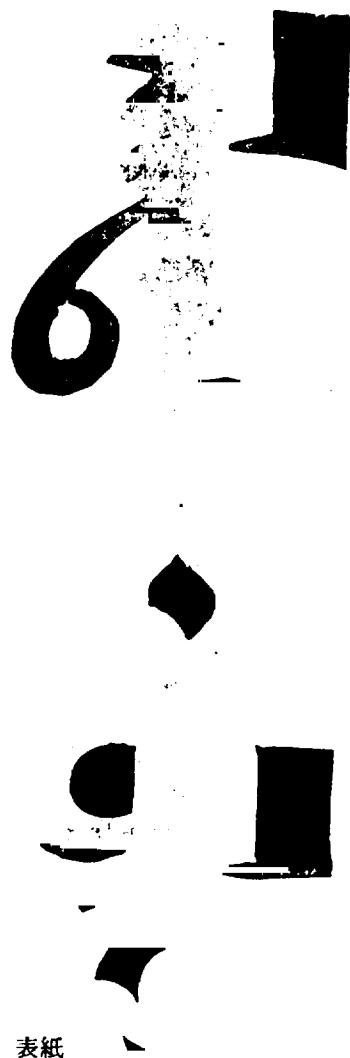
그 第1頁의 上欄에 「鈴江藏書, 第參四號」라는 印章이 찍혀있어, 이 책은 原來 鈴江氏의 藏本이 있었다고 表示하고 있는데, 이 鈴江氏는 原來 日本陸軍省發行 「蒙古語大辭典」의 編者인 한 사람인 「鈴江萬大郎氏」임이 明分하다. 그는 일찌기 「蒙古語大辭典」을 編纂하다가 그 完成을 이루지 못하고 天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의 死亡年代는 1930年代이니까, 그가 이 책을 求得한 것도 1930年 前後일 것이니 「蒙古共和國 第三年」도 이때 즈음일 것으로 믿어지는데, 그 確實한 複刊年代는 現在로서는 알 수 없다. (後記 參照)

이 複刊本은 初刊本(大概是 木刊本)에서 活字化하는 過程에서 數多한 誤植이 있고, 不必要한 「語例」等을 多數 例擧하고 있어, 「言語의 修飾」이나 「心精演義」(資料第三) 보다는 要領을 얻지 못한 것이 되어버려서 途中에 中止해버릴까 생각도 했으나, 一端은 그대로 紹介하는 것도 一助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本文이 理解하기 困難한 點도 있고, 不必要한 雜多한 「語例」들 때문에 오히려 그 理解에 妨害가 되는 點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그 誤植에는 蒙古語使用者가 아닌 筆者에게는 큰 苦痛이 아닐 수 없었다. 本文 語例中에는 이러한 誤植으로 因해 翻譯없이 그대로 둔 예도 (原來 이 語例들에 對한 國語翻譯은 不必要한 것이나, 讀者들의 便宜를 為해서 翻譯을 붙이기로 한 것이다.) 있으나, 原筆者の 意圖를 좀더 理解하기 為해서 卷末에 原文을 紹介했으니, Rome字와 對照하여 理解에 도움이 되었으면 幸甚으로 생각하겠다. 筆者가 이와 같은 「蒙古語文法」資料를 紹介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된 理由는, 西洋人們이 作成한 「蒙古語文法」보다는 蒙古人들이 作成한 蒙古文法은 그 「文法概念」이若干 달라서 蒙古人들은 主로 그 「綴字法」에 重點을 두고 있다는데 差異가 있다.

따라서 西洋人們이 發刊한 蒙古文法書는, 그 綴字法이 大端히 疏忽하게 取扱되어 있기 때문에, 蒙古人들의 「文法書」와 西洋人们的 「文法書」

金鑑  
卷之三  
目次



「金鑑」의 表紙

金鑑  
卷之三  
目次

VIII

1003

를 아울러 參考하면, 補完해 주는 點이 많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여기 紹介하는 「金鑑」도 亦是 同種에 屬한다.

다음 機會에는 그 資料第三으로 「心精演義」(Jirügen-ü tolto)를 紹介하고자 하는데, 그 機會에는 「金鑑」에서의 失望을 多少 回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mongyol üsüg-ün yoson-i todorqayilan yarqaysan "altan toli" kemekü  
蒙古 文 法을 明瞭하게 說明한 『金 鑑』이라하  
orosibai  
는(內容)이 여기 들어 있다.

[I]<sup>1)</sup> (1) namu gürü qutuqtu jalayu manjusiri kiged kelen-ü erkekü  
南無 大師 尊者 若 文珠菩薩 과 雄辯者  
(2) swarsuwadi eke dür bisiren sügündü mürgümü; masi ketürgei  
swarsuwadi 母神에게 歸依하여 무릎꿇고 拜禮합니다. 대단히 뛰어난  
yoöl (3) yoson-i onoqui bilig-i ürüsiyen soyorq-a; angqa  
根源과 道理를 解得하는 智慧를 恵 賦하소서! 最初에  
mongyol-un üsüg-i (4) barayun rajar yeke bandida blam-a künggeçelčen-ü  
蒙古 文字를 西 土 大 學者 喇嘛 künggeçelčen의  
gegenten toqtayan (5) Jokiyasan "jirügen-ü tolto"<sup>2)</sup> kemekü sudur ača  
明哲으로 定하고 編制한 「心精演義」 라 하는 書冊에서  
ekilejü egüsgen (6) Jiromlaysan ba, qoyin-a mün rajar-un monglam  
始 作하여 지켜傳해온것 과, 後日에 同一 地方 의 monglam  
blam-a yin Jokiyasan (7) "jirügen-ü tolto yin dayilburi ortarroi  
喇嘛 의 編制한 「心精演義」 의 註解書」인 「天  
yin mani"<sup>3)</sup> kemekü sudur-i (8) yoöl bolyažu kerelegseger basa  
符」 라 하는 書冊을 原本 으로해서 使用하면서, 또한

1) 로마數字 [I], [II]……等은 “page”(頁)를 表示하고, 아라비아數字 (1), (2)……等은 그 行數를 表示한다.

2) “Jirü gen-ütolto”는 文字 그대로는 「心臟의 筋」이 되지만 蒙古文法書로서는 最初의 것으로 밀어지고 있고, 大體的으로 「心精演義」라고 翻譯했다.

3) 拙論文 「言語의 修飾」에서는 이를 “ottorroi yin mati”로 읽고(印刷의 不分明關係로), 「天理」라고 翻譯했으나, 本 「金鑑」에는 分明히 “mani”로 記錄되었음으로 「天符」로 고쳤다. 그러나 또 다르게도 翻譯할 수 있는 餘裕가 없는 것도 아니며, 이 「天符」또한 「天空護符」의 緩約이다.

surači köbegüd uquju ülü (9) čidaqu gi senggeregüljü tegri yin  
 學 生들이 能히 解得하지 못할것 을 修得시켜서 乾  
 tedgügsen<sup>4)</sup>-ü on dur odq-a ünen (10) güng<sup>5)</sup> kemekü ertemten sayid-un  
 隆 年間에 文 誠 公 이라하는 學者가  
 Jokiyasan yurban jüil-ün üge (11) qadamal üjeküi dür kilber  
 編制한, 三 種의 言語 解釋을 學習하는 데에 平易하게  
 boloysan kemegtekü neretü bičig<sup>6)</sup> tür (12) mongyol üsüg-ün Jirom-i  
 한 책이라 題名한 書籍 에서 蒙古 文字의 法程을  
 yekel-e taniyolon todorqayilaju surqu (13) arad-i naran metü  
 特別히 認識시키고 正確하게해서 배울 百姓들에게 太陽 처럼  
 keyigüljükü; teyin atal-a üligerlejü [II] (1) üJegülgüsen inu  
 빛나게 했다. 그러나 比較해서 教示한 것이  
 delgerengküi yin deger-e manju bičig-i mongyolčilan (2) orčijulqui  
 廣大할 뿐만이 아니라, 滿洲 書籍을 蒙古語로 翻譯할  
 dur keregletekü olan jüil-i qabsuran jiyalčaysan-u tulada üčügen  
 때에 使用되는 많은 方式을 合쳐서 教授하기 때문에 나이어린  
 oyodan sanaysan dayan baytajan ayalaju dang (4) rayča mongyol  
 學生이 暗記하고 暗誦하여 單 獨으로 蒙古  
 üsüg-ün Jirom-i ilyan salyaju uqaqui dur bergesiyekü (5) boloysan ba  
 文字의 法程을 區別해서 解得하는데는 困難하게 되는 것 과  
 basaču olam olam iyar šayiloju daromal daroysan anu (6) olan bolojad  
 또한 漸次로 製版해서 印 刷하는 것 이 많게 되고,  
 tasiyanan čalayardaysan dur kürčü qarilčan dayaldaqui dur (7)  
 誤記 誤植이 많게 되는 데에 이르러서는 相互間에 忍耐하기 에는

또 「言語의 修飾」에는 “Jirügen-ü tolto yin dayilburi”(心精演義註解)와  
 “oytarzoi yin mani”(天符)가 別個의 書冊인 양 翻譯되었으나, 그 中間에 列  
 掛格에 該當하는 “kiged”라든가 “ba”가 없고, 또한 comma에 該當하는 符  
 號가 없는 것으로 보아 前者가 後者の 修飾句로 使用된 것으로 解釋하는  
 데, 蒙古語에는 이런 點이 不分明해서 苦痛스러운 點이 많다고 할 수 있겠  
 다.

4) “tegri yin tedgügsen” 清「高宗」의 年號; 「乾隆」(1736~1796)間.

5) “odq-a ünen güng” 人名. 「文誠公」으로 解讀된다.

6) 이는 漢文으로 「三合便覽」의 蒙文書名이다. 滿文으로는 “ilan hacin-i gisun  
 kamcibuba tuwara de ja obuha bithe serengge”로 되어 있다.

nerbegtegsen-ü očir-a törö geltü<sup>7)</sup> yin on dur alašan<sup>8)</sup>-u čin wang<sup>9)</sup>-un  
苦痛스러운 까닭에 道光 年間에 阿拉善의 親王  
qosiyun<sup>10)</sup> (8) -u rabjimba<sup>11)</sup> tangtar neretü merged-ün sayorin-a  
旗의 라稱하는 智者の地位에  
erkesigsen nigen lama surqu (9) arad-i amur kilber medekü bolyan  
있었던 한 喇嘛가 學生들을 平易하게 解得하게 하여  
tobčilaju er-e em-e ersu kemekü turban (10) ilral iyar Jokiyasan  
簡略하게 男性, 女性, 中性의 세 区分으로 編制한  
kelen-ü čimeg<sup>13)</sup> kemekü sudur-i neng sitüjü kereglegseger (11)  
「言語의 修飾」이라하는 書籍을 매우 信賴하여 使用하여  
irejükü; oul mongyol-un üsüg-i dörbetüger<sup>14)</sup> masida yaruysan-u (12)  
왔다. 原來의 蒙古 文字를 第四次로 完全히 發行한바의  
qarayčin taolai jil dur tuljor joqiyasan ača edüge badarayoltu (13)  
癸卯 年에 最初로 編製한 以來, 오늘 (光  
törö<sup>15)</sup> yin qorin yisütüger on-u qarayčin taolai jil kürčü iretel-e  
續) 二十九 年의 癸卯 年에 이르러 오도록

7) 清朝「宜宗」代年號, 道光(1821~1850)

8) 地名, 「阿拉善」

9) “čin wang” 漢文「親王」, 또는 「和碩親王」, 清朝室族階級十二中의 第一位에 該當한다.

10) 滿洲語 “gūsa” 「旗」의 蒙古翻譯.

清朝에 있어서 滿洲八旗, 漢軍八旗, 蒙古八旗等의 「旗」이고, 清朝親兵인 軍隊의 單位로 指稱한다.

11) “rabjamba” 「學者」 또는 「醫者」를 意味하나, 여기서는 “rabjamba tangtar” 가 複合語인지 또는 “tangtar”가 人名인지는 不明. 그러나 前後 文脈으로 보아서 複合語이고, 或은 「官名」인가도 생각된다.

12) “blama” &lt;西藏語, 喇嘛教의 僧侶, 또는 「首領」等의 뜻이 있다.

13) 註 ① 參照.

14) 이 “dörbetüger”는 「回數」를 말하는 것인지, 「年次」를 意味하는 것인지 不明이나, 「言語의 修飾」에도 “dörbetüger rab biong un qarayčin taolai jil dur joqiyasan bui”(第四 載비용의 癸卯年에 編製한 것이다)라고 記錄하고 있다.

15) “badarayoltu törö yin qorin yisütüger on”은 清朝年號로는 「光緒 29年, 癸卯年」에 該當한다. 이는 「言語言의 修飾」에서는 蒙古文字의 創制年慶을 「道光八年戊子年」(1828)에서 585년을 遷及하는 것으로 記錄되어 있어, 이는 (1828-585=) 西紀 1243年이 되는데, 여기서는 「光緒二十九年」(1903)에서 660년을 遷及하는 것으로 되어서 亦是(1903-660=) 1243年이 되어서 兩者的 記錄이 一致하게 된다.

(1) jirγoran Jayon jiran on boljuqui; kečiyenggüilen sanabasu  
 六百六十年이 되었다. 삼가 생각하니  
 ene metü (2) ertemten dam dam dayilburilan joqiyarsayar  
 이와 같은 智者들이 次例로 註解하며 계속해서 編制하여,  
 olan iyar jiromlan dayaju (3) kereglegseger tasoldan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隨從하여 쓰면서, 杜  
 dutaytaysan čimege ügei čay tur egel (4) mungqay minu metü  
 絶되고 書信 없는 時節에, 平凡 蒙昧한 나와 같은  
 kümün nemelte bolyan bičikü kereg ügei bolbaču (5) suružči arad tur  
 사람이 補完해서 著述할 것은 없는 것이지만, 學生들이  
 daroi olju medebesü Joqiqu keregtei Jüil (6) bay-a say-a  
 即時 시리 알수있다면 適用 用事項이 若干  
 tudaytaysan ba; nemen taniyolju todrqayilbasu Joqiqu (7) jüil basa  
 不足한 바 도 補充해서 認識시키고 分明히 한다면 適用 事項 또한  
 bay-a say-a bui ber ülü barom; tügeman elbegtu<sup>16)</sup> yin (8) on du  
 조금씩 이라도 끌나지 않을 것이다. 咸豐 年間  
 oritu mongyol bičig-ün čirola gi jiraysan dörben bicig<sup>17)</sup>-i (9)  
 以前에 蒙古 書籍의 累要點을 敎示한 四書를  
 joqiyaysan mergen sayid sayišangry-a<sup>18)</sup> yin bey-e Joqiyana bičiged  
 編制한 賢大臣 賽尚阿의 親히 編纂에서 쓰고  
 tarqayan (10) jabtaysan ügei qočoraysan-i qadayałaysayar ünügen  
 公刊할 時期를 얻지 못하고 遺留시킨것을 保管하면서, 最近의  
 yeke jurjan yamun-u (11) olan sayid ertemten neyilejü nemen  
 大廳 衙門의 諸大臣들 賢者들이 研究하고, 補充  
 jalaražolon joqiyayad tuγayan (12) jarlaysan mongyol üsüg-ün qoriyaysan  
 改修해서 編纂하고 公認해서 刊行한 「蒙古文集」  
 bičig<sup>19)</sup> neretü sutur-i (13) üjebesü üge üsüg inu čüm irayu todrqai  
 라 題한 書冊을 보면, 言語와 文字는 모두 맑고 밝으

16) "tügeman elbetü" 「咸豐」, 清文宗年號 1851~1861.

17) 「蒙文指要四書」

1. 蒙文斷義 上·下, 2. 蒙文法程, 3. 便覽正訛, 4. 便覽補遺 以上의 四種이 收錄되어 있다.

18) 前記「蒙古指要四書」의 著者 sayišangry-a, 漢文으로는 「賽尚阿」로 쓴다.

büged; sedkil [IV] (1) küdügekü metü γayiqamsiytaı bičig mün  
 며 心神이 動搖하는것 같고, 穎妙하며, 文字 또한  
 bügetel-e γayča kü mongrol (2) üges-ün dolyan ayalru gi sanamsar  
 그리하지만, 單只 蒙古 語의 七聲 을 注意  
 ügei manju kitad-un tabun (3) ayalru dur adalidqaju qoyilayolon  
 없이 滿漢의 五聲 에 對照 應合시켜서  
 bičigsen-ü tulada kelegleküi dür (4) kilber busu boloysan ba; üsięg  
 쓰기 때문에 使用할 때에는 쉽지 않게 되어버린것과 文字  
 jalγaltuqu jirom ču bay-a busu (5) jürigüü bolqu büged, qoyiči  
 連結 法 또한 적지 않게 難澁하게 되고, 將來에  
 yin surqu arad ud abqu uγurqu yin (6) ilγal-i amur olju čitaqu  
 學生들이 取捨의 區別을 쉽게 能히 할 수  
 ügei; medekü yin kiri ber über-e (7) über-e dayaltun tataγtaju  
 없고, 知得하는 限界가 各者 各者에 따라서 이끌리게되어  
 qarılıçan jüriltükü gi boljubasu ülü (8) bolqu yin deger-e,  
 相互에 서로 違背하게 된다면, 아니 될 뿐만이 아니라,  
 bidan-u mongyolčud tur tuytaysan üsięg (9) ügei yin tula, γajar  
 우리 蒙古人들에게 一定한 文字가 없기 때문에, 各  
 γajar-un bičig adali busu ba; (10) doloγayilaysan doqiy-a ügei  
 地方의 書冊이同一하지 않는 것과 字頭化한 記號가 없기  
 yin tula erijü olqu eki aday ügei, (11) imaγta busud-un nom bičig tür  
 때문에, 求得할始末이 없고, 今俗의 書冊에는  
 sidum<sup>20)</sup> dayaltuju yabuqu yin tedüi (12) ber ünggerekü inu daroi  
 困가 隨伴되어 쓰여질 뿐이지만, 過去에는 即  
 basuytal-un oron metü kemekü eče γadan-a, (13) sutur tur nomlaysan  
 度視의 對象처럼 생각하는 것 外에 書冊에 說明된 바  
 anu üsięg-i bičiküi dür ileküü tudaγu [V] (1) boroyu yin gem  
 는 文字를 쓸 때에 過不足하는 誤謬의 弊에  
 qaldaytaqu ügei; bürin ariyun bolbasu buyan čiγolγan-i (2) yekede  
 걸리는 바가 없었다. 全清 일것같으면 幸福을 많이

19) 「蒙古文集」蒙語辭典, 蒙·漢·滿語의順序로對照해서記錄되어 있고, 清光緒十七年(1891)에刊行되었다.

20) 蒙文字의 「丨」는 一齒, 「ㅋ」는 二齒等으로 말한다.

qoriyamui; ariyun busu ber qayisi yasi bičibesü nom-i (3) 行할것이며, 不 清일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쓰더라도 書冊을  
 debčigsen-ü kündü onal bolomui kemejüküi; qinabasu Jüi  
 벼리게 되는 重 罪를 犯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案건데, 真理  
 inu aliba (4) kümün buyan-i olqu ba; kilinče eče donilaqu gi  
 는 모든 사람이 福을 얻는것 과, 罪孽에서 救濟되는 것을  
 erkim boljabasu Joqiqu yin (5) tulada oul joqiyen tuytayaşad  
 尊貴한 것으로 삼는다면 當然한 것이기 때문에 原本을 固定시키고  
 jiromlan daýarsayar iregsen qarоčin (6) sutur-úd-i ژool boljašu  
 遵 奉하여 왔던 古 書 들을 内容으로 삼고  
 nemeltei Jüil-üd-i oyon-u kiri ber nemerilegülün (7) tübčilan tegüjü  
 补充 部分들을 知識의 限界에까지 补充시켜서 集合해서 모으고,  
 qamtu nigen-e qoyilaşolon todqayilaşu medegüy-e (8) kilber  
 함께 包合시켜서 分明하게 하여 理解시키기 為해서 쉽게  
 boljan bičibesü (9)<sup>21)</sup> a, e, i, o, u, ö, ü; na, ne, ni, no, nu, nö, nü;  
 해서 쓰면,  
 (10) ba, be, bi, bo, bu, bö, bü; ya, ge, gi, yo, yu, gö, gü; (11) qa,  
 ke, ki, qo, qu, kö, kü; ma, me, mi, mo, mu, mö, mü; (12) la, le, li,  
 lo, lu, lö, lü; ra, re, ri, ro, ru, rö, rü; (13) sa, se, si, so, su, sö, sü;  
 da, de, di, do, du, dö, dü; (V) (1) ta, te, ti, to, tu, tö, tü; ja, ğe,  
 ji, jo, ju, Jö, Jü; (2) ča, če, či, čo, ču, čö, čü; ya, ye, yi, yo, yu, yö,  
 yü; (3) { pa, pe, pi, po, pö, pü; ša, še, ši, šo, šu, šö, šü; (4) ža,  
 { fa, fe, fi, fo, fu, fö, fü;  
 že, ži, žo, žu, žö, žü<sup>22)</sup>; wa, we; terigüden ekeşig keyigülügči (5)-  
 等의 母音, 子音  
 kemekü qoyer Jüil iyer Joqiyasan čagan toloyai<sup>23)</sup> yin arban doloyan  
 이라하는 二 種 으로 編制한 白 頭 의 十 七

21) (一)(二)(三)等은 末尾에 原文으로 表示하고 註도 兼한다.

22) 字頭의 順序가 「言語의 修飾」과 一致하며, 特히 本項의 字頭도 「言語의 修飾」에도 있으나, 現在에는 알려져 있지 않는다.

23) “čagan toloyai”(白頭)는 蒙古文字의 字母를 稱함.

- (6) ayimat toloy-a, doloyan ayalju üsüg-üd-ün deger-e aday-un (7)  
 列 字頭와, 七 聲 字들의 外에 最終의  
 wa, we, kemekü qoyer neyilejü(ba); basa ng, iyar, kemekü qoyer  
 라 하는 二字를 添加해서(와) 다시, 라 하는 二  
 üsüg-i (8) nemebesü bügüde nigen jaŋon qorin yurban üsüg bolomui;  
 字를 添加하면 總 一 百 二 十 三 字가 된다.  
 edeger (9) üsüg-üd-ün ang terigün-ü a ayimat-un doloyan üsüg bügesu  
 이들 諸字들의 最 初의 a 列 的 七 字는  
 (10) üsüg jalŋaju bičiküdür dumta ba aday tur orou yoson  
 文字를 連結해서 쓸 때에 語中 과 語末에는 使用하는 法이  
 (11) ügei yin tulada qan üsüg kemen nereyidügsen ba daray-a olan  
 없기 때문에 王 字 라고 名稱하는 것 과 그다음에 많은  
 (12) üsüg-i čüm ene toloy-a yin ayalju bar tajan dayotaqu bolqu<sup>24)</sup>  
 文字를 全部 이 字頭 의 發音 에 따라서 發音하게 되기  
 (13) yin tula ekesig<sup>25)</sup> üsüg kemen neyiledügsen bolai; tere metü  
 때문에 調母(母音) 字 라고 名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očir-i [VII] (1) des darayalan todrqayilabasu, (arban ertem ilerkei  
 理由를 大 例로 分明히 한다면 『十 德을 分明히  
 olbasu uqayan (2) ürgejikü ünen bolomui)<sup>26)</sup> kemegsen metü  
 얻고, 學識 넓히는 것은 眞理가 된다.』 라는 것과 같  
 büged; basa üsüg-ün kelber (3) über-e gi tanju medebesü bolqu yin  
 고 또한 文字 型의 各各 을 識別해서 알면 되기  
 tula yurbatuŋar-un arban (4) Jirŋoran üsüg-i čüm iledgekü ügei  
 때문에 第三 의 十 六 文字 全部가 區別 없는  
 üsüg-ün kelber adali (5) bügetel-e<sup>27)</sup> layotaqu ayalju über-e  
 字 型과 같아 되는데 反해서 읽는 發音은 各己 다르게

24) 即「母音調和」를 말하는데, 그 語頭에 오는 母音이 「男性母音」이면 後續母音도 全部「男性母音」이 後續되어며, 또 「女性母音」이 오게되면, 또 全部「女性母音」이 後續한다.

25) “eke”(母, 初; 原) + “-sig”(接尾辭)>ekesig(調母, 母音)

26) 括弧內의 語彙들은 即 蒙古語에 있어서의 母音調和의 例를 「文章」을 만들어서 說明한 것이다. 따라서 「文意」를 이루지 못하는 곳도 있다.

27) 이는 “o/u”, “ö/ü”, “g/k”, “γ/q”, “d/t” 等이 그 字形은 같으나, 그 읽는 發音은 語彙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을 말함인듯.

bolqu bui yin tula, tedeger (6) Jirγoyan üsüg-i tos tos iyar tanıyolon  
 되기 때문에, 이들 六 字를 각각別로 識別해서  
 todorqayilabasu (namnaqu (7) nomu; nemnekü<sup>28)</sup> isegei; nuqai; γaqai;  
 分明히 해본다면, 『弓射할 활, 털을 犬(犬), 돼지(猪),  
 (8) noyosu sibayun; nügür qani; nügür kündü)<sup>29)</sup> kemegsen ba (bayatur,  
     篇 鳥, 男子 親舊 女子 親舊』라는 것 等 과 『英雄,  
 berge, (9) bodolγ-a, bujayai büge, büdügün)<sup>29)</sup> kemegsen kiged;  
 困難한, 計算, 強壯한 力士, 粗雜한』이라는 것 과,  
 (二) terigülekü γa, qa qoyar (10) dusol bui ügei yin erkeber  
 語頭에 있는 는 二 點이 있고, 없고 的 標識에 依해서  
 taniqu ilyaltai tula ese iledgen; (11) dötüger eče dolotuyar  
 識 別하기 때문에 不明하지 않다. 第四列에서 부터 第七列에  
 kürtel-e dörbeged bolqu naiman üsüg inu (12) (robi dur γurban  
 이르기까지 四個가 되는 八 字 는 『沙漠에로 셋이  
 kürgesü küyümüi; qoyin-a ača qurdulan kügejü kürümüi)<sup>29)</sup> (13)  
 到着하면 競爭한다. 後方에서 부터 急速히 뒤쫓아 到着한다.』  
 kemegsen ba; basa ene qoyar ayimay-un todorki dede γutayar dörben  
 라는 것 과 또한 이 二 種의 内部 다음의 第三의 四  
 [VII] (1) üsüg qarılçan qosiyad adali gi iledgebesü (gegen gilöger  
     字가 相互 二個씩 같은것 을 說明한다면 『밝고 빛나는  
 toli, keger (2) kilayasun, oysortai) kemegsen kiged, (masida megelen,  
 거울, 級色의 毛髮, 革帶』 라는것 과 『大端한 術策,  
 moyoran mosiqiju mügege<sup>30)</sup> (3) müligülüümüi) kemegsen ba;  
 蛇(moyo+yan)이 서리고, (銀)을 깎게 한다』 라는것 과,  
 (langtayar, legleger, longqu saba, loo yin daγon, (4) ülüng jud lüge)  
     瓶壺 器物, 龍 聲, 饑 餓 와  
 metü kemen Jirγotuyar-i ekin-e üge bolγaju ese (5) cidaγaysan-i  
 같은 것 第六列을 語 頭에 오게 할수 없는것을

28) 本文獻은 誤記, 誤植이 많은 것 같아서 解釋에 迷惑되는 곳이 많은 것 같 은데, 이 “nemnekü”도 “namnaqu”로 記錄되 되어, 이는 “nemnekü”的 誤 記로 보고 修正한 것이다.

29) 括弧內는 例文, 前註 29) 參照, 以下 같음.

30) “müneggün”(銀)의 誤字인가?

dumta oryolosan ba (rasiyan naritu boroyan oroyu kürügesü (6)  
 語中에 오게한것 과 『甘露, 細雨가 내리 면  
 kürügülümüi) kemen yača ekin eče busud tabun anu čüm  
 먹게 한다.』라는例에서 單只 最初 外의 五個(語彙)는 모두  
 dumta oryosan (7) ba (sayiqan sedkil, songyorsan suryayolin-a,  
 中間에 들어있는것 과 『 좋은 精神, 選擇된 學校에서,  
 (四) sügündü süsüglemüi) (8) kemegsen kiged; da üsüg-ün ayimay ekin-e  
 禮拜하며 敬한다.』라는 것 과, da 字의 類가 語頭에  
 (四) ireküi dür da(de) adali (9) bolqu tula (dalai deger-e dolyan  
 을 때에 da(de)와 같이 되기 때문에 『海 上에 七개의  
 dörbeljil dürsü) kemeged (10) dumta ireküi dür (bardam, miderkeg,  
 四角型』라고하고 語中에 을 때에는 『自慢, 恐怖,  
 (四) modon, siduryu, üdügekü, (11) edügübüri) metü kemegsen ba; ta  
 樹木, 忠直한, 誘惑한다. 創始』와같이 되는것 과, ta  
 üsüg-ün ayimay ekin-e üüküdür (12) kebiyer büged, (tarayon,  
 字 類가 語頭에 을 때에는 前記와 같으며 『肥滿한,  
 tenggelegün, torom, toyol, tülüg, tümen) kemeged, (13) dumta  
 健康한, 小鶴, 小牛(송아지), 賠還, 萬』이라 하고, 語中에  
 (四) ireküi dür ta(te) adali bolqu tula (atajarqaqu, eteged,  
 을 때에는 ta(te)와 같이 되기 때문에 『羨・妬(미워하고), 옆(側),  
 dotoror, [IX] (1) rotorad, ütelejü, bütümüi) kemegsen ba; basa  
 秘密히, 損傷하고, 老(老), 完成한다』라는 것 과, 다시또  
 ene qoyar ayimay-un dotoraki (2) rutayar qoyar üsüg qarilčan adali  
 이 二 種類의 内部에 第三의 二 文字는 相互 相似한  
 gi iledgebesü (dingšay-un dayon, (3) tingkim-un tüsime) metü kiged;  
 것을 說明한다면 『樂器의 소리, 官廳의 官吏』와 같고  
 (dayon toy-a, Jerge ded, Jobalang, (4) ebersiyel, Joroyaraqu nayadom,  
 『百數, 第二級, 悲痛, 辛苦, 즐길 娛樂,  
 Jügelen Jülgégür) kemegsen ba; (čayača (5) ber čegerlegülüün, čoroji  
 부드러운 青草』라는것 과, 『法律』로써 禁止시키고, 자물쇠  
 gi čoyorjaljad, čüm-i čügüleltei) kemegsen-ü (6) deger-e (yambar,  
 를 잡그고, 全部를 라고하는것 外에 『如何한,

yeke, yoson, yutan, yügege, yügen) kemegsen kigel; (7) (parčianaju, 쿤, 法規, 라고하는것 과 『parči소리내며 bučalamui, parčikinaju qaniyamui, pur pur bučalamui; pur pur (8) 沸騰한다, parči parči하며 기침한다. pur pur 뿜는다. pur pur orkilamui, püg püg suysiltomui; püg püg qaniyaltumui) kemegsen 거품이난다. püg püg 자빠진다. püg püg 기침한다.』라고 하는 것 (五)

(9) ba; ša üsüg-ün ayimay bolbasu (šalamayilaqu) jerge ekileged 과, ša 字 類 는 『突進한다』 類를 為始해서 (六)

(10) sa üsüg-ün ayimay tur adali bičikü büged; ilyal (11) sa 字 類 와 비슷하게 쓰 고, 모습이 dokiyaltubaču, aru yin qoyer tosol temtegtei tula endegülekü (12) 相似하지만, 背面의 二 點의 記號가 있기 때문에 混同함 yabutal ügei kemegsen kigel; basa egün-ü daray-a nigen ayimay üsüg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이들 다음에 一 種의 文字 (七)

(13) bügesü deger-e yaruysan ja üsüg-ün ayimay-i dumta ba aday tur 는 上部가 나온 ja 字 類를 語中 과 語末에 [X] (1) bičikü yoson-i taniyolosan-u tulada bürin-e todorqayilbasu; 쓰는 規則을 認識시켰기 때문에 完全하게 解說한다면 (yarjar. (2) ejelen, büjiglekü boljumur, biljooqai yin süjögür küjögüü) 『土地, 統治하며, 춤추는 종달새, 참새 의 목(類)』 kemegsen ba (čaya) (3) kemegsen metü, (wayar toyosy-a, weger 하는것 과 『法律』 하는것 같고, 『煉 瓦, čisun) kemegen terigüden arban naiman (4) ayimay üsüg eče kelber 血』 라하는 等의 十 八 種 字 에서 字型과 über-e yutayar üsüg-üd-i ese (5) iledgen kelber adali ayalju 相異한 第三 字들을 區別하지 않고, 同一字型과 發音이 über-e bolqu yurbayad angki (6) qosiyad iyan qarılçan adali jiryojan 다르게 되는 三個 項 二個 로써 서로 같은 여섯 üsüg-üd-i des daryalan (7) tobčilan üjegülügsen egüber esi tataju uqaqui 文字들을 順 次로 給合해서 보이는 이들을 引用해서 理解할 dur berge busu (8) amui y-a; basa (nayimay todom) doloyan üsüg-ün 때에는 困難 없는 것이다. 다시 七 字

dotor-a tosburi (9) yin terigün dötüger tabutuyar üsüg čüm er-e;  
 中에 各自 의 第一列, 第四列, 第五列, 字는 모두 男性字이고,  
 ded Jirrotuyar (10) dolotuyar üsüg čum em-e; γayča γurbatuyar  
 第二列, 第六列, 第七列 字는 모두 女性字이며, 單只 第三列  
 üsüg-ün čum (11) ersu bolai; basa busu sutur tur čingy-a, kündüi  
 字의 全部는 中性이다. 그런데, 書冊 에는 陽, 陰,  
 sayarmay rurban ilyal (12) nigen γaryaysan büged; tere ču er-e  
 中性(兩性 具有者)三 區分의 一樣으로 說明했는 데, 이 또한 男性  
 kemekü čingy-a, em-e kemekü kündür (13) ersu  
 이라 하는 것을 陽, 女性 이라고 하는 것을 陰, 中性  
 kemekü sayarmay kemegsen očir anu yeke tülüb tür aliba  
 이라고 하는 것을 兩性 具有者 이라하는 理由 는 一般 的으로 모든  
 ügülekü [XI] (1) ügen-e dayotaqu ayalu čingy-a bolbasu čüm  
 語 彙에 頭音節 發音이 陽 일것 같으면 모두가  
 čingy-a; kündüi bügesü (2) čüm kündüi yin tulada üsüg jalyan  
 陽이고, 陰 일것 같으면 모두가 陰이기 때문에 字母 級字 해  
 bičiküdür er-e em-e qoyer (3) üsüg-i nigen üges tür neyilegülün  
 쓸때에는 男性, 女性 二 字를 한 語彙에 混合해서  
 bičijü ülü bolomui kemegsen (4) bolbasu, erge ügei bay-a say-a  
 쓰지 않는 다고 하며 라도, 반드시 若干은  
 qoližatu Jiromsiysan ba; (5) mongyol-un kelen eče busud keleber ner-e  
 混合해서 쓰는것 과, 蒙古 語 外의 外國語로 名  
 üge bičiküdür Jaljaju (6) bičigtekü masi olan bui bolai; ersu  
 詞를 쓸 때에 連結해서 쓰게 되는것이 甚히 많게 된다. 中性  
 üsüg-i er-e ba em-e alin dur (7) ču Jaljan bičijü bolqu büged;  
 文字를 男性과 女性 어디 든지 또한 連結해서 쓰게 되고,  
 er-e lüge očiraysan ersü gi (8) čingy-a dayotaqu; em-e lüge  
 男性과 合하게 된 中性 을 陽(으로) 發音하는것, 女性과  
 očiraysan ersü gi kündüi dayotaqu (9) ba; dang ersü  
 合하게 된 中性 을 陰性으로 發音하는것 과 單純히 中性만으로,  
 neyilegelsen üsüg-i mün kündüi dayotamui; (10) üligerlebesü, (altajtaysan;  
 連結한 文字를 亦是 陰으로 發音한다. 例를 들면, 『消失된 것,

ede; eltegegsen; arisu; iraysan küsig; (11) iregsen kümün; ijiltegsen  
 財貨, 製造된것, 毛皮, 露出한 船底橫木, 온 사람, 무리를지은  
 (八) mal) metü; basa wa, we qoyar üsüg (12) mongyol-un üges tür  
 家畜』와 같다. 다시또 wa, we 二 字는 蒙古 語 에는  
 (九) bui büged; wi, wo, wu, wö, wü, ene tabun (13) üsüg mongyol-un  
 있고 wi, wo, wu, wö, wü, 이 다섯 文字는 蒙古  
 üges tür ülü keregsekü büged, üsüg-ün [XII] (1) debisger tür čü  
 語에서는 使用하지 않고, 文字의 接用字(반침)으로도  
 ülü keregsekü yin tula čayan toloyai dur qasojuqui; (2) basa  
 使用하지 않기 때문에 白頭(蒙文字母)에서는 削除했다. 더우기  
 deger-e yaraysan čaya toloyai yin olan üsüg-ün dotor-a ača (3) na,  
 採用한 白頭 諸字母 中에서 n,  
 (十) ba, γa, ma, la, ra, sa, ta, ja, wa ene arban üsüg-i üsüg-ün door-a  
 b, γ, m, l, r, s, t, J, w 이 十字를 字母 아래에  
 (4) debisger bolyan jaljaju bičikü yin ergeber ami ügei kemegtejü;  
 接用字 되게 連結해서 쓸수있는 理由때문에 氣息없이 使用되어서,  
 (十一) (5) türge-e dažotažtaqu ekesig kelber olju edeger-ün deger-e ng  
 促急하게 發音되는 母音 型을 얻고, 이들 外에 ng  
 üsüg-i (6) nemeged bügüde arban nigen üsüg-i debisger-ün ami ügei  
 字를 添加하고 總十 一 字를 接用 無氣  
 üsüg (7) -üd kemejükü; debisekü yoson-i tos tos todorqayilabasu, na  
 字 라고 稱한다. 接用하는 樣式을 順次로 解說하면, n  
 (十二) debisger inu (8) üsüg-ün dumta bolbasu nigen sidu; aday bolbasu  
 接用字 는 語中 일것같으면, 一齒, 語末 일것같으면,  
 (十三) sidu ügei qoyisi tataysan segül bolai; üligerlebesü (kündü,  
 齒 없이 後方으로 빼치는 꼬리 이다. 例를 들어 말하면, 『重  
 (十四) (十五) küngegen) metü (10) tegünçilen; ba debisger inu dumta aday tur  
 輕』와 같고 이와같이해서, b 接用字 는 語中, 語末에  
 (十六) (十七) dum sidu ügei (11) bičimü; (tobči, tülbü) metü; ya(ge) debisger inu  
 모두 齒 없이 쓴다. 『 단추, 橫樣』과 같다. γ(g) 接用字 는  
 er-e üsüg-ün (12) dumta qoyar sidu, aday tur sidi segül nijged  
 男性 字 의 語中에는 二齒, 語末에는 完全한 꼬리 一個

(十八) büged qoyar (13) tosol-i čüm qasomui; (maytaysan jasar) metü;  
 이고, 二 點을 모독 削除한다. 『稱讚한 制度』와 같다.

(十九) em-e üsüg-ün (XIII) (1) dumtatu dur ke(ge) üsüg-ün toloyai adali  
 女性 字 의 中間 에는 k (g) 字 字頭 처럼  
 bičiged sidu gi qasomui; (2) aday tur ng üsüg-ün segül adali bičimüi;  
 쓰고, 閨 를削除한다. 語末에는 ng 字 의 꼬리 처럼 쓴다.

(二十) (二十一) üjegsen bičig) (3) metü; ma anu dumtatu dur nigen sidu ača  
 『본 책』 과같다. m 는 語中 에는 一 齒에서부터  
 tatamui; aday tur (4) sidu ügei segül eče tatamui (amtatai  
 線을 긋는다. 語末에는 齒 없이 꼬리에서부터線을 긋는다. 『甘(단)

(二十二) (二十三) em) metü; la anu dumtatu (5) dur ma yin adali tataqu ba; aday  
 藥』과 같다. l 는 語中 에는 m 와 같이 線을 긋는 것과 語末  
 tur sidu segül čüm ügei ber (6) tatamui; (alta qorayol) metü;  
 에는 閨와 꼬리 모두가 없는 것으로 긋는다. 『全 寧集』과 같다.

(二十四) (二十五) ra anu dumta ba aday tur čüm sidu (7) ügei bičimüi; (urtu ogor)  
 r 는 語中 과 語末에 모두 齒 없이 쓴다. 『長 短』  
 metü; sa anu ra dur adali bičimüi; (8) (tegügsen ečüs) metü  
 과같다. s 는 r 와 哈似하게 쓴다. 『選擇한 目的』과 같이  
 bolbaču keb-ün bičig-ün aday tur n debisger (9) lüge tülüb adali  
 되지만 活 字 의 語末에 na 接用字 와 同 形으로  
 bičijü jiromsijuqui; da (ta, de, te) anu dumtatu dur (10) üsüg-ün  
 쓰고 긋는다. d 는 語中 에 文字 의  
 gedesü adali büged, nigen sidu aday tur gedesü eče (11) segül  
 腸子 와 哈似하고, 一 齒가 語頭에 腸子에서부터 꼬리를  
 (二十六) (二十五) tatamui; (kündüdgekü ejed) metü bolbaču (ede edelekü dede daroγ-a)  
 긋는다. 『尊敬할 君主』와같이 되지만 『財貨 使用할 次 官』  
 (12) terigüden dür segül sidu ügei toloyai bičikü jiromsil ču endegürel-i  
 等 에 尾, 齒 없이 字頭를 쓰는 뜻 또한 過誤를  
 (13) qayaysan očir bolbai; ya anu dumtatu dur imayta qoyar urtu  
 防止하는 理由 이다. y 는 語中 에 單只 二個의 長  
 [XIV] (1) silbi bičikü bolbaču em-e yin temteg silbi tei üsüg üges-  
 脚을 쓰게 되지만 女性 記號 脚 있는 語 集

- ün (2) ekin-e tokiyaltuqu ba, ersü üsüg lüge tokiyaltuqu abasu čüm  
의 語頭에 應合할 때와, 中性字 와 應合하게 된 境遇에는 모두
- (3) dür nigen sibi gi qasomui; aday tur imaya ersü üsüg-ün segül  
一 脚 을 削除한다. 語末 에는 꼭 中性字의 꼬리와
- (4) adali bičimüi; adalidqabasu (uyidqarlaqu üiles; eyimü bergetei)  
같이 쓴다. 例하면 『悲痛할 일, 이와같은 困難한 일』
- (26)
- (5) kemegsen metü; wa anu dumtatu dur ta(da) debisger-ün  
라고 하는 것과 같다. w 는 中間(語中)에 t(d) 接用字와
- adali büged (6) sidu ügei; aday tur ba üsüg-ün toloyai adali bičimüi;  
같 고, 菌가 없다. 語末에는 b 字의 字頭 처럼 쓴다.
- (27) (28)
- (qaoli (7) eregüü) metü; ng anu dumtatu nigen sidu talbiyad ya  
『法律과 刑罰』과 같다. ng 은 語中에 一 菌를 쓰고, γ
- debisger em-e (8) üsüg tür očiraysan adali bičimüi; aday tur keb iyer  
接用字의 女性 字에 合하는것 처럼 쓴다. 語末 에는 同一하게
- (29)
- jalyan (9) bičimüi; (tangsoy Jiryalang) metü; basa egün eče ya  
接續해 쓴다. 『愉快한 즐거움』과 같다. 다시 이들에서부터 y
- (30)
- debisger-ün door-a (10) (na, ya(ge), ma, la, ra, sa, da(ta)) doloran  
接用字 아래에 『n, γ(g), m, l, r, s, d (t)』의 七
- üsüg-gi debisejü bolqu tula (11) dabqor debisger ču kememüi;  
字를 接用하게 되기 때문에 重 接用字 라고도 말한다.
- (31)
- ülicherlebesü, (toyin, toyı, oyim, ayıl (12) čayır, Jayis, sayid) metü  
例를들면 『僧侶, 膝蓋骨, 流散, 村邑 亞鉛, 移轉, 大臣』과 같은
- (32) (33)
- kemejüküi; üjejü kinebesü yača ja busu büged (13) basa wa  
것이다. 詳 察건데, 單只 j만이 아니 고, 다시 또 w
- debisger-ün door-a debisejü bolqu amui; ülicherlebesü (oul [XV] (1)  
接用字 의 아래에 接用 된 다. 例를들면 『本
- (34)
- qosıγun; soor ujuuqu; yool getülekü) metü bolai; basa debisger-  
旗(本地故鄉); 鹿角을 벤다. 渡 河』와 같 다. 또한 接用
- ün (2) üsüg-üd čüm ami ügei tula tedeger tür ami jaljaJu üsüg-  
字 의 모두가 無氣이기 때문에 이들 에게 接氣하는字
- (35)
- üd (3) inu; (a(e), i, o(u), uu, un, ud) ene Jiryan üsüg bui;  
들 은 『a(e), i, o(u), uu, un, ud』 이 六 字 이다.

ülicherlebesü (tegün-e, tegün-i, (4) tegün-ü, sayin-uu, keyid-ün, 例를들면, 『그에게, 그를, 그의, 좋은가? 寺廟의, (三十一) jil-üd) metü kemejükü; edege-ün deger-e (gi, yin, ber(bar), (5) iyar 數年』와 같이 말한다. 이들 外에 『gi, yin, ber(bar), iyar (三十二) (iyer)) kemekü dörben üsüg-i nemeged neyide arban üsüg bolqu; (iyer)』라고하고 四 字를 合해서 合計 十 字가 될 것이다.

edege-i (6) yambar üsüg-ün segül-dür bičibesü Jokiqu yoson-i tos 이들을 무슨 字의 字尾에 쓰면 合當한가의 方式을 각 (三十三) tos todorqayila (7) basu (čačolay-a) kemekü ene inu (ba, sa, da 각 解明한다면 『빼침』이라고하는 이것 은 『b, s, d (三十四) (ta), ng) dörben debisger eče busud (8) doloyan debisger üsüg bügüde (t), ng』의 四 接用字 外의 七 接用字 모두의 yin segül dür bičimü; ülicherlebesü (9) (bayan-a, em-e, el-e, er-e, 例를들면 『支柱, 母, 一切, 男便, (三十五) (三十六) (三十六) 字尾에 쓴다. 例를들면 『支柱, 母, 一切, 男便, ey-e, yow-a) metü; i, iyar (iyer), ene qoyar anu (10) ya, wa qoyar 平和, 美麗한』와 같다. i, iyar (iyer), 이 二字 는 y, w 二字 ača busud na terigüden yisun debisger-ün door-a bičimü; baray-a (11) 外의 n 等類의 九個 接用字 아래에 쓴다. 大體로 ülicherlebesü (bayan, lab, adaγ, bičig, em, mal, ger, tos, arad, ed, 例를든다면 『富, 蠟, 終末, 書冊, 藥, 家畜, 家屋, 本元, 衆人, 財, (三十六) sang) (12) (三十七) metü yin door-a bičigtemü; u ene inu γayča na 倉庫』과 같은(語彙의) 아래에 쓰여진다. u 이字 는 單只 n debisger-ün door-a (13) bičimü (tan-u, tegün-ü) metü; uu ene 接用字 아래에 쓴다. 『 너희들의, 그의』과 같다. uu 이字 (三十八) inu (sayin uu, ügei üü) gekü Jerge [XVI] (1) asayoqu üges tür 는 『좋은가?, 없는가?』라고하는 類의 質問 語에 (三十九) (三十九) kereglegtemü; un ene inu na, ya, wa γurban (2) debisger eče busu 使用된다. un 이字는 n, y, w 三個 接用字 外의 naiman debisger bügüde-yin door-a bičimü; (sab- (3) un, adaγ-un, 八個 接用字 全部의 아래에 쓴다. 『用器의, 終末의, üsüg-ün, em-ün, mal-un, ger-üm, tos-un, arad-un, ed-ün, (4) wang- 文字의, 藥의, 家畜의, 집의, 原來의, 衆人의 財의, 王의』

(三十九) (四十) (四十)

un) metü; ud ene inu un kemekü lüge nigen adali bolai; gi (yi),  
와 같다. ud 이字 는 un字 와 한 가지 이다. gi (yi),

(四十一)

yin, ber (bar) ene yurban anu imayta debisger ügei üsüg bügüde kiged  
yin, ber (bar) 이 三字 는 單只 接用字가 없는 語彙 全部 와

(四十二)

(6) ya, wa qoyer debisger-ün door-a bičigtemüi (düli, balai,  
y, w 二個 接用字 아래에 쓰여진다 『半(中央), 盲人,

(四十三)

ergegüü) metü; (7) busu basa (anu, inu, nuyud, nügünd, luγ-a, lüge,  
刑罰』과 같다. 亦是 또한 『anu, inu, nuyud, nügünd, luγ-a, lüge,

(四十四)

dayan, degen, tayan, (8) tegen, tur, dur, ču, Ju] edeger arban dörben  
dayan, degen, tayan, tegen, tur, dur, ču, Ju] 이들 十 四

üsüg-i yambar üsüg (9) -ün segül dür bičikü yoson-i iledgebesü  
字 를 무슨 語彙 -의 語尾 에 쓰는가의 方法을 分明히 한다면,

(四十五)

büdügübči tülüb inu (10) (anu, nuyud, luγ-a, dayan, tayan) edeger-i  
大體的으로 『anu, nuyud, luγ-a, dayan, tayan』 이들을

imayta er-e (11) üsüg-ün door-a bičimüi; (inu, nügünd, lüge, degen,  
單只 男性 語의 아래에 쓴다. 『inu, nügünd, lüge, degen,

(四十六)

(tegen) (12) edeger-i imayta em-e üsüg-ün door-a bičimüi; basa narin-a  
tegen] 이들을 單只 女性 字 의 아래에 쓴다 다시 詳細히

(四十七)

(13) ilγabasü (tur, tayan, tegen) ene yurban üsüg-i imayta (ba, γa(ge),  
類別하면 이 三個 字 를 單只 『b, γ(g),

(四十八)

ra, sa [XVII] (1) ta(da)) tabun debisger-ün door-a bičimüi;  
r, s, t(d)], 五個 接用字 아래에 쓴다.

ülicherlebesü, (lab tur, (2) abulčayulju jab tayan tobiysayar  
例를 들면, 『반드시 서로 尊取케 하며, 그의 閑暇한 틈에 바느질하면서

keb tegen tenggečegülümü; aday (3) tur bičijü nutuγ tayan ilegeged  
그의 本分에 平等하게 한다. 語未 에 쓰며 그의 故鄉에로 보내고,

bičig tegen neyilegülümü; γajar (4) tur kürčü sutur tayan üjeged  
그의 書冊에 親近케 한다. 地方 에 致着해서 그의 書冊을 보고

debter tegen temteglemüi; sabas (5) tur aγulju qaγas tayan kürgeged  
그의 書籍에 記載한다. 그릇 에 담아서 그 半에 이르게하고

ečus tegen dügürgemüi; edege (6) tur ilγaraju ded tür Jöysomui;  
그 끝에까지 가득차게 한다. 결 에 分類되어서 第二次로 起立한다.

balyad tayan qarijad merged (7) tegen medegülfü ed tegen nememüi)  
그의 市내로 돌아와서 賢人에게 알리고 財產을 补充했다.』

kemekü metü büged; ülegsen (8) arban nigen üsüg-i üligerlebesü  
라고하는 것과 같고, 残餘한 十一字를 例를 들면

(burqan, kümün, Jam, em, mal, kül, (9) dalai, delekei, ayou,  
『佛, 사람, 道路, 藥, 家畜, 足(足), 바다(海), 大陸, 廣大한,

(四十四) degüü, wang, küng) metü Jiryoan debisger ba; (10) (buday-a,  
이우(弟), 王, 公(功)』와 같은 六接用字 와 『밥(飯),

(四十四) idege) metü debisger ügei üsüg-üd-ün door-a bičimüi; (11) ču  
食物』와 같은 接用字가 없는 語彙들의 아래에 쓴다. ču

kemekü egün-i tusyar bičiküi dür ami ügei alin üsüg-ün (12)  
라고하는 文字 이것을 特別히 쓸 때에는 無氣의 어느 文字(語彙)

door-a bolbaču bolqu bügetel-e jaljaJu bičiküi dür imayta (dur,  
애래가 되더라도 되기 때문에 連結해서 쓸 때에는 單只 『dur,

(四十五) un, Jerge) (13) turban üsüg-tür adali tabun debisger-ün door-a  
un, Jerge] 三個 語彙에 同一하게 五個 接用字의 아래에

JaljaJu bičimüi; [XVIII] (1) üligerlebesü (abču, ügču, kürču,  
連結해서 쓴다. 例를 들면, 『가지고, 주고, 이르러서,

(四十五) sonosču, sügündü) metü bolai; (2) (dur, ču) kemekü ene qoyar  
듣고, 무릎꿇고』와 같다. 『dur, ču』 라하는 이 二個

üسüg-i inu ču dur kereglegsen tabun debisger (3) eče busud Jiryoan  
字를 또한 ču에 使用된 五個 接用字 外에 六個

debisger ba debisger ügei üsüg bügüde yin (4) door-a kereglekü büged;  
接用字 와 接用字 없는 語彙 全部의 아래에 使用하 고,

dur kemekü gi imayta tusyar ču kemekü gi (5) JaljaJu bičimüi;  
dur 는 特別히 ču 와 連結해서 쓴다.

üligerlejü ese üJegülügsen inu nügüge tal-a gi (6) to dorqayilaysan-u  
例를 들어 陳述하지 않는 것은 다음 面에 分明히 解說했기

(四十六) tula bolai; basa dur-un oron dur qaran-a ayiladqaba; (7)  
때문이다. 또한 dur가 쓰여질 位置에 王字의 a가 使用된다.

(kümün-e ügülebe; rajar-a ergübe; ner-e ilegebe) kemekü terigüden  
『사람에게 말했다. 나라에 推薦했다. 이름을 보냈다.』라는 等의

- (8) čačoly-a ber küičedgen bičikü bui bolai; basa na eče ekilen arban  
빼침 을 한해서 쓰는 것이다. 다시 n에서 始作하는 十
- (9) Jiryoan ayimay üsüg-üd-ün dötüger tabutuyar üsüg-üd-i üges  
六 種 字 들 의 第四, 第五 字 들 을 語彙의
- (10) -un ekin-e ba dumta bičiküdür kebiyer bičimüi; aday tur  
語頭 와 語中에 쓸 때에도 同一하게 쓴다. 語末일 것  
bolbasu (11) gedesü gi čüm-ün debisgen-ün adali bičimüi; teyin  
같으면 腸 을 모든 接用字 와 哈似하게 쓴다. 그렇지만  
(四十七)  
atal-a ᶻa, qa (12) qoyar ayimay-un terigün, dötüger, tabutuyar bolqu  
r, q 二 種의 第一, 第四, 第五가 되는  
(四十七)  
ya, qa, ᶻo, ru, qo, qu (13) Jiryoan üsüg-üd adali busu büged üges-ün  
ya, qa, ᶻo, ru, qo, qu, 六 字 들 은 同一하지 않고, 語彙의  
ekin-e keb iyer [XIX] (1) bičigtekü inu adali bolbaču dumtatu  
語頭에 同一하게 쓰게 되는 것 은 同一하지 만 語中  
(四十七)  
dur bolbasu terigün inu (2) ᶻurban sidu; dötüger tabutuyar anu  
에 올것 같으면 第一 은 三 齒이고, 第四, 第五 는  
(四十七)  
qoyar sidu nigen gedesü; (3) aday tur bolbasu terigün inu sidu  
二 齒 一 腸이며, 語末에 올것 같으면 第一 은 齒,  
(四十七)  
segül, čačoly-a nijiged; (4) dötüger, tabutuyar anu mün qoyar sidu  
꼬리, 빼침, 各一個씩, 第四, 第五 는 同一하게 二 齒,  
(四十七)  
gedesü gi busud-un aday (5) tur bičikü gedesü adali bičiged ᶻa, qa  
腸 이 아닌 語末 에 쓰는 腸과 같이 쓰고 r, q의  
(四十七)  
qoyar ayimay-un ilγal-i (6) qosiyad tosol olγosan esegsen iyer tanimui;  
二 種 的 區別을 二 點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으로 判別한다.  
(四十八)  
na, ša qoyar ayimay-un (7) dötüger, tabutuyar qoyar üsüg-üd busud  
n, š 二 種의 第四, 第五 二 字 들 은 他字  
luγ-a adali ügei metü (8) abaču teden-ü emün-e qoyitu nijiged  
와 類似點이 없는 것 같지 만 이字 들의 前 後에 一個와  
(四十八)  
qosiyad tosol ilγaltai tula ese (9) todorqayilabai; jiryoan dolotuyar  
二個 點의 區別이 있기 때문에 解明하지 않겠다. 第六, 第七  
bolqu em-e yin temteg silbi tei (10) üsüg-üd-i üges-ün ekin-e  
이 되는 女性 字의 記號의 有脚 字 들 을 各語彙의 語頭와

keb iyer bičikü bolbaču dumta ba aday tur (11) čüm silbi gi qasomui;  
 同樣으로 쓰게 되지만, 語中 과 語末에는 모두 脚 을 削除한다.  
(四十九)  
 basa (läge, nügünd) qoyar-un silbi gi qasosan (12) anu imayta üges-  
 또한 läge, nügünd 一字의 脚 을 削除한것 은 모두가 語彙의  
 ün segül-dür taγaltuju yabuqu yin tula kemejükü; (13) kinan sanabasu  
 末尾에 隨伴해서 읽혀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詳 察하건대,  
(五十一)

(büged, bügesü, bügetel-e, büluge, yügen) terigüden üges-ün [XX]

『büged, bügesü, bügetel-e, büluge, yügen』 等 語彙의

(1) door-a taγaltuju em-e yin temtegtei üsüg-üd olan büged; tere  
 아래에 隨伴해서는 女性 記號 語彙들이 많 고, 이들  
(四十九)  
 büri gi (2) ese qasosan atala (läge, nügünd) qoyaryan-u  
 모두의 字를 (脚)을 削除하지 않으면서도 『läge, nügünd』 單二個字의  
 silbi-gi qasoqu anu lab (3) über-ün ergetü busud-un ergetü  
 脚을 削除하는것 은 真實로 各者의 權利 外의 權利

kemekü ber barimtalaysan bolbau, gebečü yerüngki  
 라는 것으로 立證했다는 것이 되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大體的으로

(4) olan-u yegsil dür sibitei yin deger-e; qasoqu anu kereg  
 多數의 偕字 에는 有脚 하는데 反해서, 削除하는 것은 使用이  
 ču masi bay-a; (5) kelber ču jokistai busu yin tula keb iyer  
 亦是 甚히 적고, 語形 또한 適當하지 못하기 때문에 慣習대로  
 bičiltei amui; γayča (6) γurbatuya kemekü ersü üsüg-üd-i üges-ün  
 쓰고 있다. 單只 第三列의 中性 字 들을 語

ekin-e ba; dumtatu (7) dur čüm em-e yin temdeg adali silbi-tei  
 頭에 와 語中 에는 모두 女性 記號와 同一하게 有脚으로  
(五十一)

bičimüi; aday tur (8) keb iyer bičimüi; (sitögülin tüsügülüči) metü;  
 쓴다. 語末에도 慣習대로 쓴다. 『 와 같다.

(五十二) basa (nüke) kemekü ner-e (9) kigel (naiman) kemekü toyan-i  
 또한 『穴, 洞窟』 또는 名詞 와 『八, 여덟』 이라는 數를

eyimü kü bičikü inu tusqai ilyal kemen (10) nomlažükü; basa  
 이와 매 한가지로 쓰는 것은 特別한 것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또한  
(五十三)

(wa) üsüg ner-e yin door-a ireküdür (bodisadw-a, (11) γow-a,  
 wa 字가 名詞 아래에 올때에는 『菩薩, 美麗한,

(五十四)

lingqw-a) kemen bičimüi; basa ortodqal-un dəyotaqu qobi gi (ra(ge))  
蓮花』 라고 쓴다. 또한 延長해서 發音하는 部分을 γ (g)

(12) yin ayimay iyar toytaryasın büged; üligerlebesü (arağım iyar  
類 而서 固定시키 고, 例를 들면 『조용한

(五十四)

tarayıol; (13) sayadal ügei kügegül; qaraly-a qaraqu; egüde negegekü)  
解放, 遲滯 없는 追放, 門을 閉鎖함, 門을 開放함.』  
(閉門) (開門)

kemekü metü [XXI] (1) ber jisijü orodqal-un qobi ügkü  
라 하는것 같은것 으로 例舉하여 延長하는 部分을 賦與하는

gi medekü bolai; basa očirlay-a (2) dur busud-un ergetü über-  
것을 알수 있다. 또한 (各字가) 練字할 때에 他字의 權限과各自

ün ergetü qoyer bui kememüi; tobčilabasu (3) er-e em-e čingg-a  
의 權限 두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緜合하면 男, 女, 陽,

kündüi yin ergeber dayaltuqu üsüg -üd-i deger-e (4) todorqayilan  
陰의 權限으로 읽는 字들을 또한 明瞭하게

tarayısan anu čüm busud-un ergetü kemegtemüi; (abasu, (5)  
說明하는것은 모두 他字의 權限이라고 말한다. 『(...있지만,  
...있더라도,

amui, atal-a, bolbasu, bolai,  
(...있다. (...그러나, (...이라면 ...이다.  
...이다. (...하고 있는 中에 (...일것 같으면 (...에 關해서는 主格代用 (肯定的對答  
...라는 사이에 (...에 關해서는 主格代用 (肯定的對答  
...라고, 그리고 (...이었다. (...하고 있었다. 等 陽,

(三十五)

bügesü, büged, bülüğe) terigüden čingy-a  
(...이라면 (...그리고, (...이었다. (...하고 있었다. 等 陽,  
...萬若 그렇다면 (...하고 (...하고 있었다. (...하고, 그리고

(6) kündüi-yin alin luγ-a očirabaču ülü orbaqu gi anu über-ün  
陰의 어느것과 合字하더라도 變하지 않는 것을各自의

(五十五) (五十六)

(7) ergetü kemegtemüi; basa qa yin γurbatuar ki kemekü üsüg-i üge  
· 權限이라고 말한다. 또한 q字의 第三列 ki 字를 語

(五十七)

(8) Jalyan bičikü dür čüm oul kelber iyer bičikü bügetel-e kkir  
接해서 쓸 때에는 모두 原 語形 대로 쓰는 反面에 壇

(五十七)

tojoso (9) kkib qadak kemekü gi ene medü bičikü jiromsil basa  
埃, 頭巾이라 하는것을 이와 같이 쓰는 風習이 또한

bui bolai; üges-ün (10) čimeg inu (masi, teyin, oruyata, adabasi,  
있었다. 言語의 修飾 은 『甚히, 그와같은 全然, 特히, 大端히,  
arsan, ayali, ayad, alimad, (11) aliba, aji,  
있었던바, 조용히, 있었고, 누구던지, 모든, 누구던지 (...있다,  
여하한,

ajiru, ajiyamu, abasu, abaču, atal-a,  
...이다. (...할 수 있는가? 있다면, 있더라도, ...에 反해서,  
...일것이다. (...될 수 있는가?)

amui, bolbasu, (12) bolbaču, bolraju,  
(...이다. ...그렇게 됬다면 ...그렇게 되더라도, (...하고,  
...있다. (主格代用) (...해서는,  
...다.)

büged, bügesü, bügetel-e, kü yosoyar, bürün,  
(...고 (...그렇다면 (...라는 사이에 (...하는 方式대로 (...하고  
...하고 (...萬若...이라면 (...에 反해서 (...하는 것에 依해서 (...있고  
...이고 (...이)

boloron, iy-a, (13) buyu, egenegte, imayta, ergebisi,  
...있고, (...일 것이다. ...있다 {肯定} (永遠히, 單只, 반드시,  
...하고, (...일 것인가. (...되고, (...이다)

qaraqan, metü, eče, yerü, cüm, onča (XXII)  
(...한 그때에, ...와 같이, 에서부터, (全然 (모두 (唯一하게,  
...하자 마자, (...마다, (...마다 (每般 (全部 (特히  
...되고, (...이다))

(1) inaru, tegün eče, dahi, dahin, daroi, büri, todom,  
(尤先, 그에게서 ...에 있는, (다시 (...에 있는 (即時 (모두 (各各 (恒常,  
먼저, (...인지, (...인지 (每般 (每般

Jiči, nijiged, qosiyad, (2) ülü, anu, inu, kiged,  
(다시, (各各 二個씩 아니 이, 자 (anu와 同) ...와  
또다시, (一箇씩 (否定) (主格表示)

terigüden, kerber, ay-a, amui y-a, bui y-a,  
(...類, 萬若, (...와 같지 않다. (...일것이다. (...일 것이다.  
...等, (...不便하다. (...일시 틀림없다. (...일시 틀림없다.

(3) büluge, sača, sayar ügei, sayidur, nutuda,  
(...이었다. (...하자마자 (반드시 (...좋게 (...며 (堅固히  
...하고 있었다. (...하지마자 (틀림없이 (...먹 (...를겁게

(五十八) kemekü terigüden (4) olan bui bolai kemegsen  
 (正히) (眞實로) 라고하는것 等等 많이 있다 고 하는  
 (誠實하게) (眞實하게) 『  
 ene inu kelen-ü čimeg tür ᶻaryaysan neng (5) olan boloysan tula Jarim-i  
 이것은 言語의 修飾에 나타나는바 甚히 많기 때문에 或者를  
 qasoltai metü bolbaču, qaoli dur ilqaysan (6) naiman üsüg-ün  
 倒減하는것 같이 되지만, 文典에 區別하는바의 八字의  
 Jarim-i erge ügei oroyolbasu Jokiqu tula teyin (7) kü  
 或者를 必히 加入시킨다면 適當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또한

(五十九) (五十九)  
 nemegtegsen-i medegtekü; basa tegri kemen bičiked tenggeri (8)  
 增加된 것을 알게될 것이다. 또한 天 라고 쓰고 tenggeri  
 kemen dayutaqu; (ükin, omartaqu mülsü sulsü šasin (9) süsüg  
 라고 發音하는 것과, 딸, 忘却한다. 어름, 膳, 宗教, 信仰,  
 üsüg qoyatuyar ᶻayčakü) terigüden-i ene yosoyer (10) bičikü  
 文字, 第二, 單貝…單, 等을 이와 같은 方式으로 쓰  
 (六十一) (六十一) (六十一) (六十一)  
 kiked; (bars-un aba; ters-ün bayşı) kemekü yin ra ba; arslan (11)  
 고, 호랑이 사냥, 異教의 僧侶 라고할때 의 r 과 獅子  
 (六十二) (六十二) (六十二) (六十二)  
 kemekü yin sa ami ügei büged; (čino-wa yin kül-i soor-un  
 라고 할 때의 s는 無氣이 며, 이리(狼)의 발(脚)을 鹿角根  
 (六十二) (六十二) (六十二) (六十二)  
 iigüü-we (12) ber külüjü toorlayad qoor-a oyooleyaju door-a  
 으로 끌고, 그물을 쐬우고 毒을 마시게 하여 아래로  
 (六十二)  
 ača qoos šoro (13) ᶻool kürtel-e qadqajuqu) kemekü terigüden  
 부터 一雙 棒竿의 中心에 이르도록 찔렀다. 라고하는 等의  
 tosqai kelber dabqor [XXIII] (1) debisger nügüd-i eyin kü bičijü  
 特殊한 形의 重 接用字 들을 이와 같이 쓰고서  
 yerüngkei dür oroyada altarsiysan (2) ču olan bui amui; basa  
 一般的으로 大概 例舉한 것이 또한 많이 있는 것이다. 또한  
 (nayod, naṣtar, kūwelti, sartawki) jerje enedkeg-ün (3) kelen-i  
 『無數, 商隊長』 等의梵語를  
 mongrolčilan bičikü yoson olan bui bülige kemejükü; basa ya (4)  
 蒙古語化해서 쓰는 方法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y  
 üsüg-i üges-ün ekin dumta adayı tur bičikü yoson-i deger-e (5)  
 字를 語彙의 語頭, 語中 語末에 쓰는 方法을 더우기

todorqayilaysan-u dotor-a ese γaraysan bolbaču (amui y-a, 詳細하게 解明한 中에 나오지 않는다 면 『…일 것이다, …이다. bui y-a) (6) metü bičiged bartabar ya ekesig olyoju …일 것이다』 와 같이 쓰고 急速히 y 母音을 주어서 jangsiysan-i ču medegtekü; (7) basa čayan toloyai yin olan üsüg-慣習化한 것을 또한 알수 있다. 또한 白頭字의 많은字 (六十三) (六十三) ün dotor-a a ača wa kürtel-e (8) arban naiman toloyai üsüg 中에 a에서 w에 이르기까지의 十八頭字 eče terigün dede bolqu γucin jiryojan (9) üsüg-ün qoyisi 에서 第一列, 第二列이 되는 三十六字의 뒤로(後方) tatarsan segül metü bey-e tü qorin yisun üsüg (10) ba; 끌어당겨서 꼬리(尾)처럼 形成한 二十九字와 oroysi tataysan čačoly-a metü beyetü doloyan üsüg-i üges (11) 앞으로(前方) 끌어낸 빼침처럼 形成한 七字를 語彙 -ün ekin ba dumta jalγaju bičiküdür qoyisi tatarsan-i 의 語頭와 語中에 連結해서 쓸 때에 뒤로(後方) 끌어 당긴 것은 (六十四) nigen sidu (12) bičimüi; oroysi tataysan-i čüm qasomui; üges-ün 一齒를 쓴다. 前方으로 끌어낸것은 모두 削除한다. 語 aday-tur (13) bolbasu keb iyer bičikü ba debisger bolyan bičijü 末에 을것같으면 原形대로 쓰는것과 接用字로 되게해서 써서 (六十五) čačoly-a bar ami [XXIV] (1) oroyolqu Jerge olan bui; üligerlebesü 빼침으로 氣息을 插入시키는 等이 많이 있다. 例를들면 (六十六) (amur, bayasqulang, bügüde, (2) büridtuba, kemegsen bayaslur-a) 『無事, 快樂, 全部, 完成했다. 말한바, 滿足했다.』 kemegsen metü bolai; basa kinabasu eng (3) terigün-ü qan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詳察전례, 最初의 王 (六十七) doloyan üsüg ekin-e bičikü eče busu dumta ba aday (4) tur oroqu 七字를 語頭에 쓰는것 外에 語中과 語末에 插入하는 yoson ügei kemebečü kümün-ü ner-e gi tasoldayolal (5) ügei 方法(規定)이 없다고 하지만, 人名을 사이를 끊음이 없이 jalγaju bičikü ba; basa kerber üge bičiküdür īarim nigen (6) -ü 連結해서 쓰는것과 또한 萬若單語를 쓸 때에 或者는

dumta aday tur orolčaqu büged tere ču üjeküi där kedüi (7)  
語中 語末에相互插入하고, 그것 또한 블 때에는 어느程度

dumta aday tur aqu metü abaču tos tos tačan nigen ayalju  
語中과 語末에 있는것 처럼 보이더라도各自가 一 音節이며,

(8) üges-ün ekin-e büküi inu botoliyan ügei yin tulada Jiromsiyan  
語彙의 語頭에 있는것 은 混亂되지 않기 때문에 楷書

iyar (9) bičiküi där yoson luy-a ülü qarsilaqu bolai; basa qoyaturar  
로 쓸 때에는 法規에 妨害되지 않는다. 또한 第二列의

kemekü (10) em-e üsüg-üd-i iljalta bolyaču wa metü kelber jaljaju  
女性字들을 差異있게 해서 w 처럼 語形을 連結해서  
(六十八)

(11) taniyoloysan-u dotor-a čwsw tebder metü kereglekü bičikü  
標記시킨것 中에는 書冊과 같이 使用되어서 쓰는 方法이

bui gi (12) medegteküi; basa yerüde nigen dokiy-a olan odq-a tu,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多數의 一 語 多 義 와

nigen (13) odq-a olan dokiy-a tu bolbaču üyes tür bayoysan čay  
一 義 多 語 가 있지만 文節에서 내려오는 때에

jisiju [XXV] (1) ilyan medemüi y-a kemen nomlaysan  
順番으로 -區別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

ba; yerüngkei üges-ün iljal (2) dur čimeg-ün üge (ilyaqu qoriyaqu  
과 多數 語彙의 區別에 修飾 語는『區別한다. 著述한다.

tasolaqu tegüsgekü qayaqu (3) büdügekü Jerge masi olan nereyidgel-i  
斷絶한다. 完成시킨다. 包圍한다. 實行한다.』等 甚히 많은 名稱을

yaryaju tos tos ilyan (4) salyaču tayiloysan očir olan bui kemekü  
說明해서 各自 區 別해서 解義한 機會가 많이 있었다고

büged küyičedgen yaryaqi (5) dur jüil masi olan; tere büri gi  
하고, 完成해시 出版할 種類가 大端히 많다. 그 모두 를

narin-a ilyaqui dur tong (6) bergetei kemen sonosluy-a; kedüi  
仔細하게 區別하기에는 甚히 困難이 많다고 들었다. 아무런들

teyimü bolbaču burqan-u nom-un bičig (7) tür bolbasu kümün-ü  
이렇다고 하더라도 佛 經 書 이라 면 人

aman ača yarqu aliba üsüg dayotaqu yin (8) dayon ayalju; bey-e  
口에서 나오는 모든 字를 發音하는 音聲과 音節이 自身

yin dotoyat daki tabun maqabud-un oron ača (9) tos tos törökü  
 의 内部에 있는 五 行 의 位置에서 次例로 出生하는  
 gi ilyan salyaju siroi, usu, ki, temür, kiged (10) oytarzoi terigüden  
 것을 區 別해서 土, 水, 氣, 金 과 天空 等等이  
 tedeger orod-un qororontu ba el qarsi (11) bolqu gi narin-a ilyažu  
 이들 位置의 中間位置에 障害 되는것 을 詳細히 區分하고  
 üge üsüg Jokiyan Jalyan bičikü dür (12) qoličaltayolal ügei ber kün-e  
 語 文을 編 築해서 쓸 때에 混沌 없이 깊은  
 odqalan neyilegülkü ġerge narin niyta (13) yoson-u Jirom yekel-e bui  
 內容을 解釋하는것 等 精 密한 法 規가 많이 있다  
 kemegsen bolbaču ulus törö yin dotoraki [XXVI] (1) čayača qaoli;  
 고 하지 만 國 家 内에 있는 法 律과  
 Jiči alban-u bičig ba yerü yin bičig tür tere (2) metü ilyal-i  
 또한 公 文書 와 一般 文書 에는 그와 같은 區別을  
 mongyol-un üsüg-tür ese kereglegseger iregsen-ü (3) tulada angqarun  
 蒙古 文字에는 使用해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考究  
 abasu suryayoli yin bičayan köbegüd-ün amur kilber (4) iyer olju  
 하건데 學校의 少 年들이 容易하게 시려  
 medekü gi tusqayilan ilyažu; ayolčar neyilelge yin Jirom (5) -i  
 理解할 것을 分明하게 區分해서 字의 緝合 의 法式 을  
 Jübgen iyer todorqayilaqui dur asuru kedürgei berge busu ajiyu (6)  
 充分하게 明白하게 하는 데에 大端한 困難이 없었다.  
 kemen taniytaju bičigsen egün-i sili yin γool-un čiyolayän-u abay-a  
 고 認定하면서 쓴 이것을 sili yin γool 盟 的 abay-a  
 (7) yin barayun edegeđ Jasay-un qosiyun-u qosiyu gi Jakiroči Jangki  
 右 翼 札薩克 旗의 都統  
 (六十九)  
 (8) lhmusurung neretü üčügen kümün qoyiči yin surqu arad tur  
 이라는 분이 青少 年, 後 學 人들에게  
 tusa (9) bolqu gi küsejü teyin čayän sanayan-u egüden eče  
 利 되기를 所望해서 이와같은 漂白한 생각의 計劃 에서  
 qoyilayolon bičijü (10) olan γajar-un ertemden merged eče buruyu  
 納得해서 쓰고, 많은 地方 의 智者 賢人們에게 誤

(七十)

siyaqu gi ayočilaju Jalaraγolon (11) toγtoraqui gi γoyon; qurtan-a  
 謬 를 寛恕하며 改訂 結定시킬것 을 所顧하며, 早急하게  
 qarraqu yin idebki gi bodoju ba (12) qayolartan bičigtebesü ta-  
 發表하는것 의 勇氣 를 근심하며 書寫해서 쓰게되니 過

(七十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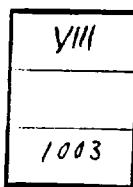
siyarat bolqu gi olyomčilaju batarayoltu (13) törö yin qorin  
 誤가 되는것 을 두려워하면서 光 緒 二十  
 yisübtüger on qarayčin taolai jil-un ekin sar-a yin [XXVII] (1) sayin  
 九 年 癸 卯 年 的 正 月 吉  
 edür-e keb tür orosiyolon γaryabai;  
 日 印 製 版 出 版했다.

(後記) 그동안 調査해 본 바에 依하면, 清朝가 亡한 宣統帝 第三年은  
 1911年인데, 이를 契機로 해서 外蒙古가 日本을 背景으로 해서 獨立을  
 主張하고, 이의 指導者는 德王이라고 自稱, 國名을 「蒙古共和國」이라  
 고 稱했다. 또 이때를 즈음해서 蒙古人們의 愛國愛族心의 發露로서 蒙  
 古語書籍의 發刊이 盛行되었는데 「蒙古書籍出版社」는 이중에 그 하나  
 이며, 이 「金鑑」의 複刊 또한 그때를 즈음하는 것으로 推測된다.

ئەنئەن ئەنئەن مەنەن ئەنئەن ئەنئەن ئەنئەن



(سەكىل - سەكىل)



“波羅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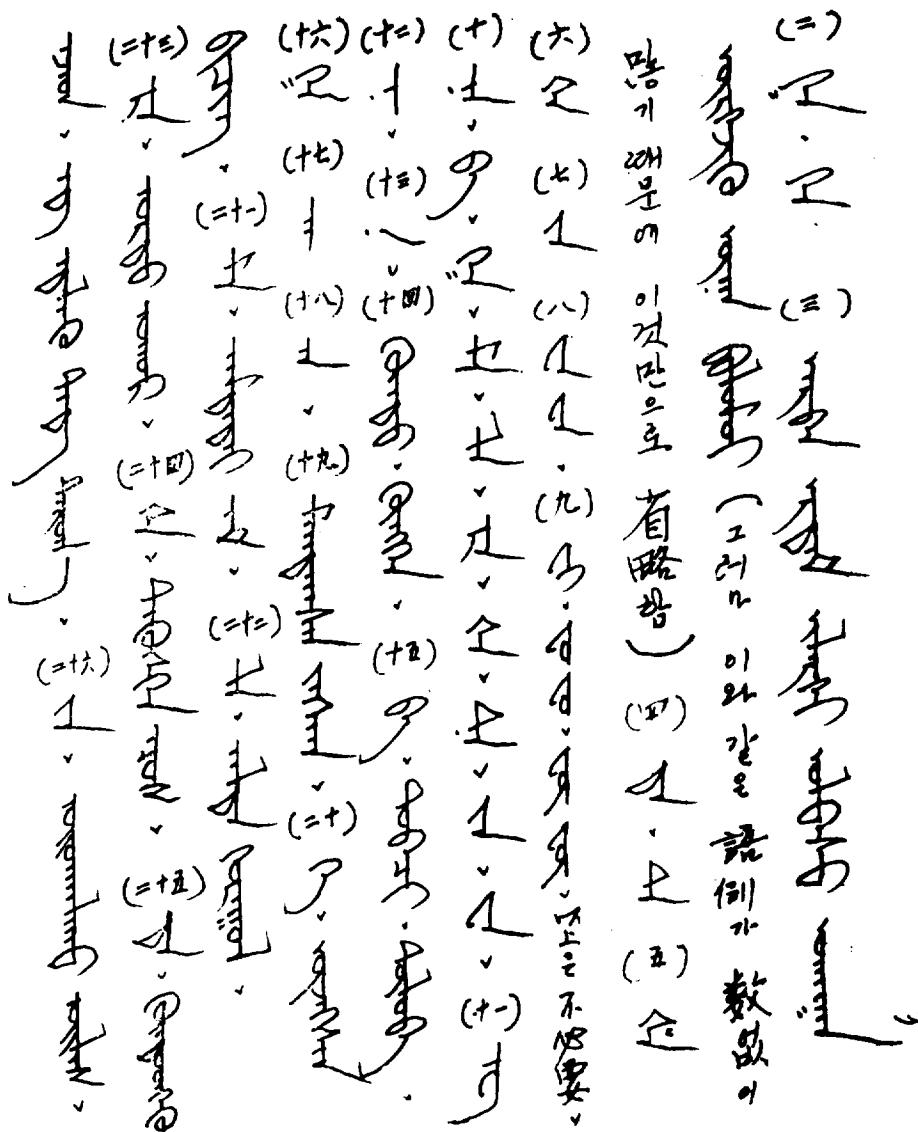
(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2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3	山	山	山	山	山	山	山	山	山	山	山	山
4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5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6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7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	:	:	:	:	:	:	:	:	:	:	:	:

2

(여기 本文을 理解할

(13) (14) (15) (16) (17) (18)	는데 音가 為하니 僧在 白頭文字를 本文의 裡에는 그대로 읽어 보았다.
1 生 1 尸 丘 生 1	그리나 그 音法는 꼭 一定하지 않고, 또若干의 個人差이 發生하니 그 年代 차는 있어야 多樣하니, 혹시 參考하는 데 좋겠다.
2 生 1 尸 丘 生 1	
3 生 1 尸 丘 生 1	
4 生 1 尸 丘 生 1	
5 生 1 尸 丘 生 1	
6 生 1 尸 丘 生 1	
7 生 1 尸 丘 生 1	
:	:







“  
四十九  
あ・ま・上  
五十年  
四十八  
あ・ま・上  
五十年  
四十七  
あ・ま・上  
五十年  
四十六  
あ・ま・上  
五十年  
四十五  
あ・ま・上  
五十年  
四十四  
あ・ま・上  
五十年  
四十三  
あ・ま・上  
五十年  
四十二  
あ・ま・上  
五十年  
四十一  
あ・ま・上  
五十年  
四十年  
あ・ま・上  
五十年  
三十九  
あ・ま・上  
五十年  
三十八  
あ・ま・上  
五十年  
三十七  
あ・ま・上  
五十年  
三十六  
あ・ま・上  
五十年  
三十五  
あ・ま・上  
五十年  
三十四  
あ・ま・上  
五十年  
三十三  
あ・ま・上  
五十年  
三十二  
あ・ま・上  
五十年  
三十一  
あ・ま・上  
五十年  
三十  
あ・ま・上  
五十年  
二十九  
あ・ま・上  
五十年  
二十八  
あ・ま・上  
五十年  
二十七  
あ・ま・上  
五十年  
二十六  
あ・ま・上  
五十年  
二十五  
あ・ま・上  
五十年  
二十四  
あ・ま・上  
五十年  
二十三  
あ・ま・上  
五十年  
二十二  
あ・ま・上  
五十年  
二十一  
あ・ま・上  
五十年  
二十  
あ・ま・上  
五十年  
十九  
あ・ま・上  
五十年  
十八  
あ・ま・上  
五十年  
十七  
あ・ま・上  
五十年  
十六  
あ・ま・上  
五十年  
十五  
あ・ま・上  
五十年  
十四  
あ・ま・上  
五十年  
十三  
あ・ま・上  
五十年  
十二  
あ・ま・上  
五十年  
十一  
あ・ま・上  
五十年  
十  
あ・ま・上  
五十年  
九  
あ・ま・上  
五十年  
八  
あ・ま・上  
五十年  
七  
あ・ま・上  
五十年  
六  
あ・ま・上  
五十年  
五  
あ・ま・上  
五十年  
四  
あ・ま・上  
五十年  
三  
あ・ま・上  
五十年  
二  
あ・ま・上  
五十年  
一  
あ・ま・上  
五十年  
〇  
あ・ま・上  
五十年  
”

한국어에서 한자어로 번역되는 것은 두 가지 사이에서  
閒者 - 老者 = 既老矣 (既便의 두 명칭이 함께 나온다)  
이를 것을 알았다. — 9-종교 강연. (五+四) — 10-  
(이들 諸掌之 老者 陽·陰 어느 쪽이 何이니 工業者을  
할지 알지 本來의 難이 2대는 無지.) (五+四)

(24) 金鑑卷之二  
 (25) 題作蒙古文法書  
 (26) 金鑑卷之三  
 (27) 題作蒙古文法書  
 (28) 金鑑卷之四  
 (29) 題作蒙古文法書  
 (30) 金鑑卷之五  
 (31) 題作蒙古文法書  
 (32) 金鑑卷之六  
 (33) 題作蒙古文法書  
 (34) 金鑑卷之七  
 (35) 題作蒙古文法書  
 (36) 金鑑卷之八  
 (37) 題作蒙古文法書  
 (38) 金鑑卷之九  
 (39) 題作蒙古文法書  
 (40) 金鑑卷之十  
 (41) 題作蒙古文法書  
 (42) 金鑑卷之十一  
 (43) 題作蒙古文法書  
 (44) 金鑑卷之十二  
 (45) 題作蒙古文法書  
 (46) 金鑑卷之十三  
 (47) 題作蒙古文法書  
 (48) 金鑑卷之十四  
 (49) 題作蒙古文法書  
 (50) 金鑑卷之十五  
 (51) 題作蒙古文法書  
 (52) 金鑑卷之十六  
 (53) 題作蒙古文法書  
 (54) 金鑑卷之十七  
 (55) 題作蒙古文法書  
 (56) 金鑑卷之十八  
 (57) 題作蒙古文法書  
 (58) 金鑑卷之十九  
 (59) 題作蒙古文法書  
 (60) 金鑑卷之二十  
 (61) 題作蒙古文法書  
 (62) 金鑑卷之二十一  
 (63) 題作蒙古文法書  
 (64) 金鑑卷之二十二  
 (65) 題作蒙古文法書  
 (66) 金鑑卷之二十三  
 (67) 題作蒙古文法書  
 (68) 金鑑卷之二十四  
 (69) 題作蒙古文法書  
 (70) 金鑑卷之二十五  
 (71) 題作蒙古文法書  
 (72) 金鑑卷之二十六  
 (73) 題作蒙古文法書  
 (74) 金鑑卷之二十七  
 (75) 題作蒙古文法書  
 (76) 金鑑卷之二十八  
 (77) 題作蒙古文法書  
 (78) 金鑑卷之二十九  
 (79) 題作蒙古文法書  
 (80) 金鑑卷之三十  
 (81) 題作蒙古文法書  
 (82) 金鑑卷之三十一  
 (83) 題作蒙古文法書  
 (84) 金鑑卷之三十二  
 (85) 題作蒙古文法書  
 (86) 金鑑卷之三十三  
 (87) 題作蒙古文法書  
 (88) 金鑑卷之三十四  
 (89) 題作蒙古文法書  
 (90) 金鑑卷之三十五  
 (91) 題作蒙古文法書  
 (92) 金鑑卷之三十六  
 (93) 題作蒙古文法書  
 (94) 金鑑卷之三十七  
 (95) 題作蒙古文法書  
 (96) 金鑑卷之三十八  
 (97) 題作蒙古文法書  
 (98) 金鑑卷之三十九  
 (99) 題作蒙古文法書  
 (100) 金鑑卷之四十  
 (101) 題作蒙古文法書  
 (102) 金鑑卷之四十一  
 (103) 題作蒙古文法書  
 (104) 金鑑卷之四十二  
 (105) 題作蒙古文法書  
 (106) 金鑑卷之四十三  
 (107) 題作蒙古文法書  
 (108) 金鑑卷之四十四  
 (109) 題作蒙古文法書  
 (110) 金鑑卷之四十五  
 (111) 題作蒙古文法書  
 (112) 金鑑卷之四十六  
 (113) 題作蒙古文法書  
 (114) 金鑑卷之四十七  
 (115) 題作蒙古文法書  
 (116) 金鑑卷之四十八  
 (117) 題作蒙古文法書  
 (118) 金鑑卷之四十九  
 (119) 題作蒙古文法書  
 (120) 金鑑卷之五十  
 (121) 題作蒙古文法書  
 (122) 金鑑卷之五十一  
 (123) 題作蒙古文法書  
 (124) 金鑑卷之五十二  
 (125) 題作蒙古文法書  
 (126) 金鑑卷之五十三  
 (127) 題作蒙古文法書  
 (128) 金鑑卷之五十四  
 (129) 題作蒙古文法書  
 (130) 金鑑卷之五十五  
 (131) 題作蒙古文法書  
 (132) 金鑑卷之五十六  
 (133) 題作蒙古文法書  
 (134) 金鑑卷之五十七  
 (135) 題作蒙古文法書  
 (136) 金鑑卷之五十八  
 (137) 題作蒙古文法書  
 (138) 金鑑卷之五十九  
 (139) 題作蒙古文法書  
 (140) 金鑑卷之六十  
 (141) 題作蒙古文法書  
 (142) 金鑑卷之六十一  
 (143) 題作蒙古文法書  
 (144) 金鑑卷之六十二  
 (145) 題作蒙古文法書  
 (146) 金鑑卷之六十三  
 (147) 題作蒙古文法書  
 (148) 金鑑卷之六十四  
 (149) 題作蒙古文法書  
 (150) 金鑑卷之六十五  
 (151) 題作蒙古文法書  
 (152) 金鑑卷之六十六  
 (153) 題作蒙古文法書  
 (154) 金鑑卷之六十七  
 (155) 題作蒙古文法書  
 (156) 金鑑卷之六十八  
 (157) 題作蒙古文法書  
 (158) 金鑑卷之六十九  
 (159) 題作蒙古文法書  
 (160) 金鑑卷之七十  
 (161) 題作蒙古文法書  
 (162) 金鑑卷之七十一  
 (163) 題作蒙古文法書  
 (164) 金鑑卷之七十二  
 (165) 題作蒙古文法書  
 (166) 金鑑卷之七十三  
 (167) 題作蒙古文法書  
 (168) 金鑑卷之七十四  
 (169) 題作蒙古文法書  
 (170) 金鑑卷之七十五  
 (171) 題作蒙古文法書  
 (172) 金鑑卷之七十六  
 (173) 題作蒙古文法書  
 (174) 金鑑卷之七十七  
 (175) 題作蒙古文法書  
 (176) 金鑑卷之七十八  
 (177) 題作蒙古文法書  
 (178) 金鑑卷之七十九  
 (179) 題作蒙古文法書  
 (180) 金鑑卷之八十  
 (181) 題作蒙古文法書  
 (182) 金鑑卷之八十一  
 (183) 題作蒙古文法書  
 (184) 金鑑卷之八十二  
 (185) 題作蒙古文法書  
 (186) 金鑑卷之八十三  
 (187) 題作蒙古文法書  
 (188) 金鑑卷之八十四  
 (189) 題作蒙古文法書  
 (190) 金鑑卷之八十五  
 (191) 題作蒙古文法書  
 (192) 金鑑卷之八十六  
 (193) 題作蒙古文法書  
 (194) 金鑑卷之八十七  
 (195) 題作蒙古文法書  
 (196) 金鑑卷之八十八  
 (197) 題作蒙古文法書  
 (198) 金鑑卷之八十九  
 (199) 題作蒙古文法書  
 (200) 金鑑卷之九十  
 (201) 題作蒙古文法書  
 (202) 金鑑卷之九十一  
 (203) 題作蒙古文法書  
 (204) 金鑑卷之九十二  
 (205) 題作蒙古文法書  
 (206) 金鑑卷之九十三  
 (207) 題作蒙古文法書  
 (208) 金鑑卷之九十四  
 (209) 題作蒙古文法書  
 (210) 金鑑卷之九十五  
 (211) 題作蒙古文法書  
 (212) 金鑑卷之九十六  
 (213) 題作蒙古文法書  
 (214) 金鑑卷之九十七  
 (215) 題作蒙古文法書  
 (216) 金鑑卷之九十八  
 (217) 題作蒙古文法書  
 (218) 金鑑卷之九十九  
 (219) 題作蒙古文法書  
 (220) 金鑑卷之一百  
 (221) 題作蒙古文法書

「高麗의 「修飾」이란, 대부분의 「副詞」이지만, 據  
『韓詞』, 「助動詞」<sup>한국어助動詞. 2</sup> 이다.) (五+五)  
AmN(A). (六+) AmN, AmN, II > (六+-) —AmN, V.  
(六+=) 01 文例 1. 立之 以 仁 也 . (仁), (也), (立).  
等量 例示此句為其 文例. 01ch. (六+) 仁, 立, 以.  
(六+) 仁, 立, 以, 等量 例示此句為其 文例.  
即 等量例示 立之 以 仁 也 . 仁, 立, 以, 等量 例示此句為其 文例.  
(六+) 仁, 立, 以, 等量 例示此句為其 文例.  
(六+) 仁, 立, 以, 等量 例示此句為其 文例.  
(六+) 仁, 立, 以, 等量 例示此句為其 文例.

(六十九) 例句 地名、地名、盟、會、某國、旗盟  
 地名、地名、札薩克、政府、制度、  
 行政官、都統、  
 人名、(t+) ~ (t+-) 盟旗、蒙古汗、一旗之汗  
 部族、汗王、